

창세기 일곱번째 메일

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이 등장했다. 아브라함은 남들이 이해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선택과 축복을 받았지만 그는 곧 사람으로서 도저히 저지를 수 없는 큰 죄를 범하며 ‘죽음의 두려움’ 앞에서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드러낸 보편적인 사람에 불과했다.(창 12:10-13)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‘미움’ 을 받을 만한 ‘거짓’ 을 범하지 않았는가?(잠 12:22). 어찌 '아내'를 '누이'라고 속일수 있었을까?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이나 ‘거짓의 입술’ 에 대한 죄의 댓가를 전혀 묻지 않으셨다. 왜 그랬을까?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속임을 당하고 재산까지 손실을 범한 ‘애굽의 바로’ 와 그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. 아브라함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는가? 당신은 이런 하나님을 정말 이해 할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?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‘선택 받은자’ 와 ‘선택 받지 못한자’ 의 차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.

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들어가기 전에 ‘하란’ 에서 이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입었다. 그는 축복의 근원이었다.(12:3) 그럼에도 그가 애굽에 들어갈 때 ‘죽음에대한 두려움’ 을 갖게 된 것은 우연한 현상이 결코 아니다.(12:12-13)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축복과 은혜를 입었지만 결코 ‘죽음의 공포’ 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.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? 잘생각해 보라!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그 최초의 인간이 저지른 죄에대한 엄청난 형벌을 이미 내리셨다. 그 형벌이 바로 ‘죽음’ 아닌가? 사람은 그형벌로 인해서 반드시 죽는 것이다. (창 2:17) 아브라함이 ‘죽음의 공포’ 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은 우리에게 의미 하는바가 크다. 과연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입었다고해서 실수 없는 완벽한 삶을 살수 있을까? 하나님에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 감격으로인해서 하나님께

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사람이 '죽음의 두려움' 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?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이후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 부끄러울 정도의 '거짓 입술' 의 죄를 범 했어도 하나님께서 그죄의 댓가를 묻지 않았던 이유는 명백하다! 이미 그가 최초 인간이 받은 죽음의 형벌에대한 극한 '죽음의 공포' 를 스스로 느꼈기 때문이다.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'죽음의 공포' 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자신하면 아브라함 보다 더 낫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. 당신은 정말 그런가? 나는 간혹 '죽음의 두려움' 을 느끼며 산다. 그러나 그 두려움으로 인해 주님께로부터 질책을 받지 않고 오히려 나를 불쌍히 보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낀다. 정말 '재앙' 을 받을 자는 죽음의 원인을 제공한 '사단의 세력' 인 것이다. 그러니 죽음의 두려움 앞에 요동하지마라! 하나님은 당신에게 아브라함을 통해 그것을 말씀하려는 것이다. 아멘!